

봄계절의 판이한 두 현실

봄,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다. 온갖 꽃이 피어나고 새싹이 돋아나는 환연한 봄이다. 어느덧 겨울은 물러가고 따스한 봄이 찾아왔다. 하지만 약동하는 봄계절에 조선반도의 양쪽에 펼쳐진 현실은 너무나 판이하다.

봄빛넘치는 사랑의 대지



봄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무릇 두렵게 언 얼음 밑으로 돌돌 흐르는 시내물소리에서, 물이 올라 한껏 부풀은 벼더개지와 더불어 봄이 온다고 한다. 하지만 인민의 꿈과 이상이 눈부신 현실로 펼쳐지는 공화국에서 이해의 봄은 겨우내 얼어붙은 대지를 흔들어 깨우는 장쾌한 발파처럼

바다 펼쳐진 려포의 눈부신 전범...

막아서는 곤난이 아무리 혹독하여도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된 생활을 안겨주기 위한 거창한 건설대전을 위한 전개하시어 인민의 행복이 넘쳐나는 무릉도원들을 끊임없이 펼쳐가는 것에 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의 손길아래 지금은 평양시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과 서포지구 새 거리건설, 강동은실농장건설이 힘있게 다그쳐지고있다.

봄기운이 약동하는 공화국의 농촌들도 들쭉고있다. 올해 알곡생산에서 뚜렷한 실적을 낼 일념을 안고 각지의 농촌들에서 양수설비들의 수리정비, 모판자체화보, 자급비료생산과 실어내기, 흙잡이 등을 바리케대내밀고있다.

드넓은 전야의 그 어디서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가 제시한 농촌건설의 휘황한 리정표따라 기세차게 직군하는 농업근로자들의 회열과 랑만에 찬 모습을 볼수 있다.

어찌 그뿐이랴. 식수질을 계기로 온 나라가 봄철나무심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바꾸어갈 애국열의에 떠받들려 봄철에는 구름꽃 하얗게 피고 그속에서 아침저녁 즐겁게 노래하는 인민의 기쁨과 행복이 꽃피어 나고있다.

얼마전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5차확대회의에서는 사회주의건설의 변혁적발전을 위한 주요전역들에 인민군대를 과결함대 대한 대책을 취하였다.

국가방위의 주체인 인민군대를 농촌진흥과 지방건설, 사회주의대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한 주요전역들에 과결

한 바로 여기에는 그 어떤 도전과 난관속에서도 인민들이 기대하고 그러보는 리상을 하루빨리 눈앞의 현실로 앞당겨 오시려는 위대한 어머니의 열혈같은 인민사랑과 투철한 의지가 어려졌다.

철세위원의 불같은 위민현신의 의지에 떠받들려 머지않

아 이 땅우에는 인민들에게 더 큰 행복과 기쁨을 안겨 줄 만복의 가을이 펼쳐지게 될것이니 세상사람들은 복받은 대지, 복받은 인민을 부러워하게 될것이다.

청년 창조와 건설로 약동하고 인민의 기쁨과 행복이 꽃피어나는 환희의 봄이다.

이다. 《(한)반도의 봄은 언제까지나 전쟁연습의 포연으로, 비행기소리로 얼룩질것인가》

이 시작 남조선 각계에서 울려나오는 극도의 불안과 고통, 절망과 규탄의 목소리들이다.

* 창조와 번영, 행복과 환희의 봄풍경!
* 불행과 절망, 공포와 불안의 살풍경!

봄계절에 조선반도에 펼쳐진 판이한 두 현실은 용변으로 보여주고있다.

행복과 문명이 꽃피어나는 진정한 인민의 락업은 어디에서 사람들에게 불행과 재난만을 들씌우는 인간생지옥은 어디인가를.

누가 평화를 사랑하고 누가 전쟁을 추구하는가를. 본사기자 흥범식

자연의 봄은 왔어도...

공화국에서 인민들에게 더 큰 행복의 가을을 약속해주며 봄계절이 한창 무르익고 있을 때 군사분계선너머 남조선에서는 인민들이 극심한 생활난에 울분을 터치고 있다.

다름아닌 윤석열여적파당 때문이다. 여적파당의 반민민적이고 외세의존적이며 무지무능한 경제정책으로 말미암아 물가폭등과 수출감소, 실업률 증가로 민생은 더욱 궁핍해지고 가혹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 세상을 등지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로동력시장의 크게 요동치면서 실업자가 늘어나고 가정채무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을뿐 아니라 집없는 사람들이 수백만명이나 되고 빠스와 지하철도, 택시, 전기, 가스요금까지 령충 뛰여올라 아우성치고있는 것이 남조선의 비극적현실이다.

남조선에서 극심한 경제위기와 악성전염병사태 등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절대빈곤층으로 전락되고 자살률, 출생률, 사고발생률 등에서 세계최악의 수준을 기록하고있다.

비참한 생을 간신히 이어가고 있다.

남조선의 근로대중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은 윤석열여적파당이 외세와 함께 벌리는 부침전쟁책동으로 하여 더욱 배가되고있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소생의 봄이지만 죽음과 파멸의 전쟁연습이 봄들판에 펼쳐지고있다. 진짜 이리다 전쟁날까 걱정이다.》

《이런 혼란은 방어적연습이 아닌 도발적인 전쟁연습



애국운동, 대중운동의 위력을 떨치며

김회일은 동

해방직후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을 벌리던 초기 이 운동은 지도일군들속에서만 주로 벌어지고 새 조국건설을 위한 실천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어 전국적운동으로 힘있게 벌어지지 못하고있었다. 이러한 현상을 바로잡으기 위하여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35(1946)년 12월 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을 위한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되어 전국적운동으로 심화되어 나갔다. 이러한 속에 1946년말 정주철도기관구 로동자들은 애국적인신성을 높이 발휘하여 파괴된 수습대의 기관차를 수리하여 수송능력을 높이는 한편 채탄중격대를 뚫고 자체의 힘으로 석탄을 캐내어 철도운행을 보장하였다.

투고

나에게는 한가지 고민거리가 있다. 한 고마운 청년을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있는 마음속피로움이다. 지난 2월 길을 가던 나는 뜻밖의 이 소식을 듣고 쓰러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마냥 후회워웠다. 그리고보면 덕과 정이 넘치는 우리 사회에는 물에 빠진 너성을 구원해준 청년이나 위급한 정황에서 나를 구원해준 청년과 같이 남의 불행과 아픔을 자기의 불행과 아픔으로 여기며 남을 위해 기꺼이 자기를 바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도 많았는지이다.

정신을 차리고보니 병원침대였다. 긴장하게 구급치료를 받던 의료일군들이 이젠 됐다고, 조금만 지체했다며 큰일날뻔했다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후 한 청년의 소식을 잃은 나를 업고 땀을 철철 흘리며 병원에 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듣느라 너 저도 모르겠는데 겁이 축축히 젖어 들었다.

하루는 그 청년을 찾지 못한 나에겐 죄책감과 함께 야속함이 밀물처럼 차올랐다. (사물무참, 그런 일을 하고 이름 석자 알려주면 못손다던가...)

하지만 누구도 그 청년에 대해 모르고있었다. 내가 정신을 차리는것을 보고는 청년이 조용히 떠나갔던 것이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나는 고마운 청년을 찾아 여기저기 수소문하였다. 그에게 고맙다는 인사라도 하고싶어서

가정에서 쓰러야 할 약마저 어렵고 힘든 세대에 보내주도록 하신 것에 감사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받들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동지들과 이웃들, 집단 먼저 생각하며 뜨거운 진정을 바치겠다.

대동강구역 동문1동 리 절영

아이들의 꿈에 비낀 세계

꿈! 꿈이라 하면 나의 뇌리에는 아이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내가 담임한 학교의 아이들이 영철이와 수경이 그리고 불행이와 예영이 등 30명의 아이들이 순서대로 눈앞에 어른 거린다.

《나 꿈은... 내 꿈은...》 뒤편을 긁으며 갑작스레 철수가 안락잠기도 하고 그럴수록 기대는 더 갔다. 끝내 터놓는 철수의 꿈. 《내 꿈은 매일 10점을 맞는 겁니다.》 순간 교실을 통제로 삼긴

가, 소년에게나의 징표라고 하신 그 최우등성적중에 나는 매일 10점을 새겨주고싶은 열망이 가슴에 불처럼 타 버렸다. 철수의 꿈, 아니 아이들의 한결같은 꿈이고 아버지원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10점의 꽃을 아름답게 피우고싶은 총동이 이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그래서 부도 모르게 나는

정적과 고요. 그러나 인차 뒤편에 울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러나 나는 웃을수 없었다. 꿈이라고 하면 너무도 소박하고 평이한 철수의 말이지만 깊은 생각과 여운을 불러주는 꿈이었다.

그러나 나는 웃을수 없었다. 꿈이라고 하면 너무도 소박하고 평이한 철수의 말이지만 깊은 생각과 여운을 불러주는 꿈이었다.

그런 사회에서 교육자들의 처지도 학생들과 결코 다를 바없다. 학생들이 비어있는 자리를 마주해야 하는 허탈감, 학생들의 고통과 불행을 체감해야 하는 아픔, 교육계약으로 정의가 아닌 부정을 주입시켜야 하는 막다른 처지에서 울분을 들이켜야 하는것이 바로 저 남조선사회의 교육자들의 진도수이다.

그러나 나는 웃을수 없었다. 꿈이라고 하면 너무도 소박하고 평이한 철수의 말이지만 깊은 생각과 여운을 불러주는 꿈이었다.

그러나 나는 웃을수 없었다. 꿈이라고 하면 너무도 소박하고 평이한 철수의 말이지만 깊은 생각과 여운을 불러주는 꿈이었다.

그러나 나는 웃을수 없었다. 꿈이라고 하면 너무도 소박하고 평이한 철수의 말이지만 깊은 생각과 여운을 불러주는 꿈이었다.

